

보증기관 집단대출 보증률 90%로 축소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살펴보니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분양 보증심사도 강화

정부, 반년만에 또 대책...관리실패 자인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관리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집단대출 쪼다...택지물량 억제·분양심사 강화=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집단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되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세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

놓았다. 금융대책 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가계부채 증세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등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구획사업(LH)이 수도권·분양주택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신규택지·재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1인당 2건만 허용...상환 능력 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금융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수요 축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수요가 아닌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하고 은

행의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보 노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다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계·취약차주 관리도 강화한다.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작년 말 기준 4곳에서 올해내로 33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42.92 (-0.84)
- ↑ 금리 (국고채 3년) 1.24% (+0.01)
- ↓ 코스닥 683.96 (-3.82)
- ↓ 환율 (USD) 1115.90원 (-6.10)

전통시장 추석 차례 비용 22만3천원

폭염에 전년비 7.2% ↑ ...대형마트 8.8% 오른 31만6천원

올해 추석 차례상을 한우 가격 폭등과 무더위 탓에 지난해 약 7.2% 더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발표한 전국 17개 지역 전통시장 16곳과 대형유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1차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2만 3000원, 대형유통업체는 31만6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7.2%, 대형유통업체는 8.8% 상승한 것이다.

폭염보다는 쇠고기는 한우 사육두수 및 도축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쇠고기 산적의 재료로 쓰이는 우둔(1.8kg 기준)의 경우 작년 추석에는 전통시장에서 6만4687원, 대형유통업체에서 7만8821원에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각각 7만3199원, 9만3498원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일시적

으로 감소한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수용 밥, 배 등 일부 과일 가격은 작년보다 올랐고, 사과와 전통시장 구매 가격은 하락했지만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상승했다.

조기 가격은 어획량 증가에 따라 하락했고, 쌀·두부·계란 등의 품목도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작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aT 김동열 유통이사는 "차례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전체 비용이 증가했으나, 정부의 추석 성수품 공급안정대책 추진에 따라 비축 농축수산물의 공급 확대, 직거래 센터·특판장 운영을 통한 할인판매 등이 이뤄지면 가격은 점차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aT는 이번 1차 발표에 이어 다음 달 1일과 8일 두 차례 더 차례상 비용 및 선물세트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땅 속 보관된 김치맛 그대로 '지펠 아삭' 삼성전자 모델들이 25일 '메탈그라운드' 기술을 활용한 2017년형 '지펠아삭 M9000'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메탈그라운드는 김치를 온도 변화가 적은 땅 속에 보관해 김치의 맛을 살린 조상들의 지혜처럼 냉기 전달과 보존 능력이 뛰어난 메탈 소재를 적용해 ±0.3℃의 뛰어난 정온유지 성능으로 땅 속 저장 환경을 완벽에 가깝게 구현한 삼성전자만의 기술이다. <삼성전자 제공>

광양항 7월 컨테이너 처리 19만TEU...전년보다 4.7% 증가

전국 항만물동량 1억2천432만...1.9% ↑

7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총 1억2432만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고 해양수산부가 2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항만물동량 가운데 수출입화물이 1억289만t, 연안 화물이 2143만t을 각각 차지했다.

항만별로 보면 울산항, 부산항, 부산항

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동량이 각각 7%, 6.6%, 5.3% 증가했다.

반면 포항항, 평택당진항, 동해목호항은 각각 16.3%, 3.3%, 2.7% 줄었다.

품목별로는 화공품이 전년 대비 14%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기계류, 유류도 각각 12.4%, 8.9% 늘었다. 광석 물동량은 19%나 줄었고 철재와 시멘트는 5.4%, 4.

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항만의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총 8618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울산항과 부산항은 이 기간 비컨테이너 선 처리 물동량이 6.5%씩 성장했다. 울산항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유류와 화공품의 수출입 물량이 늘었다.

7월 전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225만3000

TEU(1TEU =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69만7000TEU를 기록해 이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광양항은 4.7% 증가한 19만1000TEU를 처리했고 인천항은 중국, 베트남 등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16.5% 성장한 23만1000TEU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사 임금 협상 합의

임금피크제는 무산...기아차, 파업 중단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4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 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확대 적용, 고용안정 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해고자 2명 복직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임금피크제 확대를 비롯해 해 임금 1만4400원 인상, 성과급 250% 지급, 일시금 25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합의 끝에 노사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및 33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은 앞서 열린 18차 교섭에서 만

59세와 만 60세의 임금을 각각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임금 10% 삭감의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만큼 청년 연장이 이뤄지면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2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차는 지난주까지 수차례 부분 파업을 중단하고 이번 주에는 집중 교섭을 하며 대화에 임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2달째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달 9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채 지난주까지 현대차 파업에 동조 부분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앞서 열린 18차 교섭에서 만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010-3605-500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곡성, 농가 전원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8천만원, 매매 52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수기동, 제일오피스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20층, 76평, 즉시 입주가능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감정 / 시세 3억, 전매 최고 ■ 매매 - 1억 7천만 ■ 급매 (9월 5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금호동, 근린상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 감정 / 시세 7억, 모든 업종 오픈가능 ■ 매매 - 4억 6천만원 ■ 급매 (9월 5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청풍동, 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청풍동 산272번지 ■ 2339평, 신촌마을 부근 ■ 인근까지 차량통행 가능 ■ 시세 3천만원 ■ 매매 - 15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나주, 세지면 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번지 ■ 89평,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시세 1천만원 ■ 매매 - 330만원 ■ 급매 (9월 5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장성, 전원주택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나주, 근린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 좋음 ■ 매매 - 52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구례, 호텔급 모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573평, 건물 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 내, 객실 58개 ■ 시세 / 감정 15억, 리모델링 계획중 ■ 매매 - 8억 3천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월산동, 광전빌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베란다 있음 ■ 2013년도 신축, 전망 좋음 ■ 시세 1억 2천만원 ■ 매매 - 97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장성, 서삼면 농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8000만원,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6600만원 ■ 전원주택, 펜션 최고 장소